

# ‘코로나 고용한파’ 갈 곳 없는 광주·전남 ‘이대녀’

〈20대 여성〉

## 호남통계청 2021 고용동향

코로나19 확산에 2년째 지속된 지난해 광주·전남 20대 여성 취업자만 9000명이 줄었다.

일자리 직격탄을 맞은 판매직과 사무직 일자리가 각각 5000명, 1만명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광주 74만5000명·전남 98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3000명 줄고 1만1000명 늘었다.

전국 취업자는 36만9000명 늘며 7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지만 광주와 경북, 울산 3개 시·도는 취업자가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광주 취업자 감소는 지난 2020년(-2000명)에 이어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5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취업자 감소가 나타났다.

취업자가 줄어든 연령대는 20대(-9000명)와

판매직 등 지난해 9000명 ↓...5060여성 2만명 증가

전체 취업자 광주 74만5000명·전남 98만5000명

30대(-1만1000명), 15-19세(-4000명), 40대(-4000명)였다.

50대(8000명 ↑)와 60세 이상(2만7000명 ↑)은 공공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전년대비 늘었다.

지난해 20대 취업자는 광주 10만1000명·전남 8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6000명·3000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0년(-4000명)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1만명)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 들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광주에서 남성 취업자는 전년대비 2000명 늘어난 반면, 여성은 5000명 감소했다. 전남은

양성 모두 5000명씩 취업자가 늘었다.

20대 취업자는 남성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여성에서만 9000명(광주 6000명·전남 3000명)에 달하는 감소가 나타났다. 30대 취업자는 전년대비 남성 5000명, 여성 6000명 감소했다. 40대에서도 여성 취업자는 4000명 감소했지만 50대(6000명), 60세 이상(1만4000명)에서는 늘어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이 같은 여성 고용난이 도·시·군·구·읍·면·동별 경영 악화에서 비롯됐다고 풀이했다.

지난해 판매직 취업자 수는 광주에서 4000명, 전남에서 1000명 줄었다. 사무 종사자는 광주 3000명·전남 7000명 등 무려 1만명 감소했다.

김설(30)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코로나19 국내 확산 첫해를 기준으로 한 기저효과로 고용지

표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여성 청년들의 경우 단순노무와 단시간 등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가 양산되는 형국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회복에 대한 선부를 판단을 미루고 초단시간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권 사각지대에 몰린 청년들을 위한 고용 보장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률(15-29세)은 광주·전남 둘 다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전국 평균(44.2%)을 밑돌았다. 지역 청년 고용률은 광주 37.3%·전남 37.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번째, 14번째를 각각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광주 2.3%포인트, 전남 0.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지난해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취업자는 전년대비 1만7000명(광주 7000명·전남 1만명)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폭은 관련 통계를 낸 2014년 이후 가장 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島란島란 원스톱 보증 전남신보 이달부터 현장상담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섬과 어촌 소상공인을 찾아가는 ‘島란島란 원스톱 보증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남 섬지역과 어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점별로 연간 2회 이상 금융회사·지자체와 ‘원스톱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상담을 벌일 계획이다.

현장에서 보증·대출 상담과 서류접수 등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장 상담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도 확대한다.

정양수 이사장은 “도내 보증이용률이 40%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아직도 생업에 바빠 재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앞으로도 도서 지역 등 보증 소외 지역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서홍(가운데) 농협 전남본부장 등이 12일 지역본부에서 열린 ‘도약 2022년 전남농협 경제사업 추진결의대회’에서 목표 조기 달성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 농협 전남본부 “올해 5조8500억 경제사업 추진”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올해 5조8500억원 규모 경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농협 전남본부는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도약 2022년 전남농협 경제사업 추진결의대회’를 열고 사업별 세부목표를 공개했다.

사업별로 세운 판매 목표는 농축산물 4조2000억원, 양곡판매 1조1000억원, 연립사업 판매 4500억원, 로컬푸드(직거래 농산물) 매출 1000억원 등이 있다.

또 가축시장 디지털화 등 유통 대변화를 선도하기로 했다.

올해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실업지원을 위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 플랫폼 보급으로 농업경영비 절감과 인력 최소화 ▲농업 농작업 대행사업 확대와 발농업 특화 농기계 개발·보급 확대 ▲벼 새정무 품종 재배확대와 신종인 강대산 등 고품질 쌀 생산 확대 ▲노지재소 출하조절시설 확충을 통한 채소수급안정사업 등이 있다.

전남농협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벌여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실천을 강화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내년 본격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바탕으로 지역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최근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불안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 혁신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판로 확대와 유통활성화를 도모해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72.48 (+45.10)
↑ 코스닥	991.33 (+21.41)
↓ 금리(국고채 3년)	1.998 (-0.040)
↓ 환율(USD)	1190.50 (-4.20)

## “광융합 유망기술 산업화 원년...산업 선도”

###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올해를 ‘광융합 유망기술의 산업화 원년’으로 삼아 관련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2일 진흥회에 따르면 진흥회는 국내 유일 광산업 전담기관으로서 관련 기업들의 문제해결과 신제품 개발 및 수요창출에 나선다.

우선 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산업계 등과 소통을 정례화해 광융합산업 생태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과 광통신의 접목 기술, 광의료기기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 신규 대형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광융합 분야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 44억원과 광주시 예산 32억원을 투입해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활성화, 신생 기업 위주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진흥회는 해외마케팅 판로개척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66개국 4142개 업체, 참가인원 10만명의 대규모 국제전시회 ‘아랍 헬스2022’(Arab Health 2022)에 국내 광의료바이오 관련 유망기업 13개사와 함께 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할 예정이다. 이달 25일부터 27일

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SPIE 포토닉스 웨스트(Photonics West) 2022’에도 13개사와 공동관으로 참가한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국내외 방역수칙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기업들에게 제공, 다양한 기업 맞춤형 마케팅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기업 간담회도 상설 운영한다.

올해 20회를 맞는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도 올 11월 온·오프라인과 현실·가상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단순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 즉시 투입, 적응될 수 있도록 전문기술 교육과 기업에 직접 배울 수 있는 일경험 교육을 병행 추진한다. 구인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 맞춤형 취업연계를 진행하고 상시구인구직 인력풀을 마련,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광융합산업체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광융합산업 전담기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제2의 광융합산업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

광주시기능경기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022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시 기능경기대회는 오는 4월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광주지역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지역 뿌리 산업인 금형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신설된 ‘산업융드론제어’, ‘사이버보안’, ‘클라우드컴퓨팅’ 등 총 53개 직종이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광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소속 학교, 기업체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면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원서는 ‘마이스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